

2-2. 정서적 환경

Lindsey(1998)는 노숙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동기와 부정적인 태도가 노숙자 문제 해결의 장벽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숙자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낮은 동기와 부정적인 태도는 노숙인에게서 확산되어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증 등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Goodman 외, 1991)는 것이 노숙인 문제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노숙인 쉼터 입소자의 대부분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숙인 정책에서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주거문제, 취업문제인데 이러한 접근은 주거와 취업이 해결되면 노숙자가 자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식을 낳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활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환경이 구비되었다하더라도 당사자인 노숙인의 심리·정서 상태가 역할 수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고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쉼터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환경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치유·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Brandt(1999)는 노숙자 문제를 단지 집이 없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인구 집단이라는 점을 보다 중시하였는데, 덴마크 청소년 노숙자 960명을 조사한 결과 특정 사회 계층의 문제라기 보다는 양육의 문제나 양육결핍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아동기의 경험, 부가비용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는 것이 일반화된 행동 등은 경제적 필요인 동시에 하위문화에서 나온 특성의 행동유형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노숙생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노숙인을 재사회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air of superiority)', '사회적

으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통제하여 재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Blankertz 등(1999)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에서 '온화하고 양육적인 관계(warm, nurturing relationship)'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두었다. 이같은 관계형성을 위하여 전문가는 프로그램에 한정된 반응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화, 반응,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더 나은 방향 제시 등을 통하여 정서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숙생활의 경험은 '인간 이하의 존재 (less of a human being)'이라고 느끼게 하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경험이므로(Larson, 1998) 노숙생활 이후의 외상(trauma)은 노숙인에 대한 개입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내용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원조환경으로서의 쉼터의 정서적 환경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 커뮤니케이션, 감정이입, 모델링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커뮤니케이션

쉼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전문 셋팅⁵⁾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다르다. 예를 들어 식사 안부라든지, 하루 일과에 대한 안부 등을 규칙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상담 초기의 가벼운 대화

5) 기관 목표와 기능에 따라 이용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을 실천하는 이용시 결과는 달리, 노숙인 쉼터는 이용자인 노숙인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의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쉼터 수준에서 노숙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조환경(helping environment)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mall talk)와는 다른 성격으로 노숙인들에게 일상적인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규칙적이고 일반적인 생활리듬에 대한 환기를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배려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노숙인이 처해있는 일상 생활이나 생애주기에 적절한 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여기에서 노숙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이 노숙생활로 인한 좌절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므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에 대한 존중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쉼터 전문가들은 존중과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어야 하며 더불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켜야 할 일상적인 예의바른 커뮤니케이션 모델도 제시해주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노숙인을 어떻게 호칭(naming)하는가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호칭은 연령과 지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칭하게 되는데 노숙자의 경우 인간존엄(dignity)과 존중(respect)에 기반한 호칭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 원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Rogers(1990)은 시설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신체적·정서적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

6)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칫 전문가들은 '재활'과 같은 전문가적 관심에 치우친 대화내용에 치우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이 아닌 쉼터의 일상생활에서 전개되는 커뮤니케이션은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제가 적절하다. 예를 들어 성인의 경우 영화, 스포츠, 뉴스와 같은 내용이라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Blankertz 등(1993)은 이같은 일상적인 대화내용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주상담가(primary counselors)의 역할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노숙인 쉼터의 경우 생활지도원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한 교육과 사례제시가 제공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지지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외에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와 워커 간에 형성되는 따뜻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워커에게 보상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았다.⁷⁾

이처럼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노숙인과 전문인력 모두에게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전문가 사이에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Rogers(1990)는 클라이언트와 전문가 사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세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하여는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나,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업무상의 이유로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둘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전문가가 주제, 시작, 종결 등을 선정하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나 특성(예를 들어 정신질환, 장애, 물질남용) 등으로 인하여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위에서 지적한 커뮤니케이션의 저해요인인 3가지 사항을 노숙인 클라이언트에 적용해본다면 앞서 두가지는 전문가의 노력과 실행으로 해결이 가능한

7) Blankertz 등(1993)은 노숙자와 워커간의 신뢰관계는 절로 주어지기 보다는 재활/관여 과정(rehabilitation/engagement process)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쉼터의 워커와 노숙인이라는 관계 설정 구조가 신뢰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방적으로 노숙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기 보다는, 실천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 개인의 성숙과 자질 발전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양자의 이득과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것으로 보이나 세 번째 사항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노숙인은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손상되거나 알코올과 같은 물질 남용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쉼터에서 거주한다고 하여도 음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등의 일탈행동의 잠재성이 있다. 이같은 경우 전문가는 일탈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쉼터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전문가가 기대하고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에 고향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적절한 행동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적절한 매너로 다시 재현하기를 요청하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쉼터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타 기관으로 의뢰해야 할 것이다.

쉼터의 정서적 환경은 전문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 만이 역할 담당을 하는 것이라 아니라 쉼터 인력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력 전원이 쉼터의 정서적 환경을 형성하는 인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쉼터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노숙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감정이입

커뮤니케이션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감정이입 기술이 요구된다. 노숙인의 경우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으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수용과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입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⁸⁾.

Rogers(1990)는 노인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이 갖추어야 할 감정이입의

8) Blankertz 등(1993)에 의하면 노숙자의 다수가 오랜동안 따스하고 애정있는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노숙인 쉼터의 경우 대상 특성과 문제가 다르나 심리적인 위축감과 시설이용에 따르는 사회적 낙인의 부정적인 측면, 전문인력과 클라이언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등은 유사한 맥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감정이입은 개별화된 의도적 개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쉼터 일상생활 전반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감정이입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아래와 같다.

첫째, 얼굴 표정, 몸짓 등의 보디 랭귀지를 통하여 감정이입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눈맞춤을 많이 할 것. 눈맞춤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다⁹⁾.

셋째, 대화를 나눌 때 전문가의 몸의 위치는 클라이언트의 위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넷째, 대화중 침묵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을 평화롭게 수용하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대화 당사자들의 생각을 깊이 모으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대화 도중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말(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 그래요, 등등)을 준다.

여섯째, 대화 도중 클라이언트를 관찰(눈맞춤, 보디 랭귀지, 목소리)한다.

9) 직접적인 눈맞춤은 대인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보디 랭귀지이다. Blankertz 등(1993)은 정신장애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워커가 노숙자와의 관여관계 형성시 직접 눈맞춤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 눈맞춤은 상대방에 대한 수용이나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나타내는 적극적인 보디 랭귀지이므로 이같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노숙인과의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자 하는 의사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때,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눈맞춤은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

일곱째, 개방형 질문으로 묻는다.
 여덟째, 웃음을 짓고 상냥하게 보인다.
 아홉째, 목소리를 부드럽게 한다.
 열번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내용을 반영·정리하여 확인함으로써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모델링

Peifer(1999)은 쉼터 인력을 위한 안내서에서 쉼터에서 노숙인과의 활동에 대한 가이드 라이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대안적인 행동을 역할 놀이를 통하여 제시한다. 역할놀이는 모델링의 기본 개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행동을 수반한 대안 제시'는 실행에 있어 구체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참여와 이후 행동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역할놀이는 타인과의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각을 이루고 보다 바람직한 대체활동을 경험하고 습득하는 과정이라 할 때 모델링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쉼터 대부분은 가족공동체가 아닌 타인과의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노숙자 쉼터의 경우 주거해결 능력 부재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안고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 특수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극빈곤층으로 빈곤문화 형성이 용이한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집단생활 경험의 위험에 놓여 있기 하나, 동시에 쉼터 전문인력의 개입이 제공되는 환경이므로 집단생활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있기도 하다.

남세진(1986)은 인간은 일생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집단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존재로 보며 일생 동안 건전하고 적절한 집단생활을 통하여 건강하게 성

장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경험을 필요로 하며 집단경험을 통해서 인간성과 태도가 성장·변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집단생활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범받는다든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집단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영향은 모델링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타인의 행동이나 사고양식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 집단생활에서 긍정적인 모델링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Konopka(남세진, 1986)는 건전한 집단생활의 구성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1) 동료와의 동일시, (2) 한 사람 이상의 사람과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 (3) 자기표현의 자유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자유, (4) 친숙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 자기가 선호하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5)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타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 (6) 독립을 실천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의존적인 상태로 돌아 갈 수 있는 기회, (7) 타인과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 (8) 개인 또는 집단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이상과 같은 건전한 집단생활의 구성요소가 갖추어질 때 집단구성원간의 긍정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집단생활에서 바람직한 모델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위하여는 이전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타인의 행동에서 자각되는 것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타 노숙인이나전문가의 행동과 사고에서 습득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자각에 이어 일어나는 것이 행동의 변화이다. 초기에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변화된 행동을 실천하였을 때 어떤 경험을 가지는가에 따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원하고, 시도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주변적인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모델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는 모델링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과 더불어 바람직한 행동의 당사자를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고자 시도하는 노숙인의 경우, 실천 정도에 상관없이 작은 성취일지라도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2-3. 프로그램 환경

프로그램은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개인, 집단, 혹은 사회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김영중, 1998). 쉼터 프로그램은 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선별적 프로그램은 특정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성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노숙인의 경우 심리·사회적 자원이 극단적으로 열악한 경우이므로 이들의 욕구에 대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COA(1992)는 노숙자 응급 쉼터 프로그램 평가에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 이외에 노숙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가를 주요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COA의 서비스 부문 평가기준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영양, 주거요건,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외에도 쉼터프로그램은 구조화 및 비구조화된 사회·교육활동과 여가활

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둘째,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되고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기본욕구는 충족되고 있다. 그러나 활동 프로그램은 쉼터 서비스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거나 또는 참여율이 낮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이용하기에 편한 시간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거나 서비스 대상집단의 욕구와 관심에 비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기본적인 욕구가 항상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는 활동 프로그램이 미미하며 서비스 대상집단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다.

이 네 항목에 대하여 각각 실행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첫째 항목의 내용이 가장 바람직한 프로그램 실행 수준이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범위가 사회·교육·여가 활동을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원조환경 요소로서의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프로그램내의 인간관계', '프로그램 규칙',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로그램 내의 인간관계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어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따라 성패에 영향을 받는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노숙인간에 형성될 수 있는 자조적이고 비난적인 구성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이고 상호 지지적인 인간관계 형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신뢰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일문제를 가진 집단일 경

우 문제에 대한 노출과 자기개방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진 구성원과의 활동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Nelson 등(1997)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보호적이고 지지적인 또래 집단은 운용하는 것이 집단의 효과성에 기여하는 바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집단구성원간의 관계가 항상 지적이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능력이나 혹은 서로 돕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행동이나 언어로 서로를 심하게 해치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집단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1986, 남세진)

이처럼 프로그램 활동 구성원간에 형성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는 고려해야 한다. 노숙인 집단의 경우, 동일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감정을 기대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좌절의 경험을 타노숙인에게도 투사할 수 있다¹⁰⁾.

이같은 위협을 극복하는 방안은 동일한 처지의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 안도감, 서로에 대한 위안 등을 장려하면서 구성원들이 상호 수용적이고 양육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양육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노숙인과 같이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집단은 접근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 집단¹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전문가는 따뜻하고 의지할만한

10)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은 동일시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동일시의 감정은 우정이나 수용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평등한 관계 형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적대함, 혐오감 등의 감정이 동반되기도 한다.

11) 접근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는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이며, 삶의 과정에서 좌절이나 실망을 많

사람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랑하지만 엄격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Scheffer 외 1998). 이 과정에서 전문가에 대한 의존욕구가 충족되고 ‘안전하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전문가와의 관계형성에 이어 프로그램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수용, 신뢰 등의 지지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인간관계 형성은 전문가의 적극적인 역할 담당을 요구한다.

2) 프로그램 규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약속이 정해져야 한다. 이를 프로그램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각자의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오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하여는 각자의 가치와 규범을 한 테두리 안에서 제한할 수 있는 일치된 규칙을 필요로 한다. 규칙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이나 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유용성을 갖지만 규칙이 중복되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모순되거나 많으며 역기능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규칙은 특정 행동의 범주를 설정하는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규칙의 준수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상호간의 자

이 경험하여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무력감을 느낀다(Scheffer 외, 1998). 이들은 쉽게 감정을 손상받고 거부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노숙자의 경우, 이미 좌절이나 거부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전문가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전문가는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정서적인 특성에 대한 수용과 치유가 전문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운영시 원활하지 못한 진행, 미참여 등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수용은 일방적인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용되는 행동에 대한 ‘기준’ 제시와 ‘행동의 구체화’ 등을 통하여 엄격함과 동반되는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극의 장치로 삼아 변화의 노력을 집단이 함께 실행함으로써 결속감이나 서로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개인 단위에서의 변화는 결심과 실행이라는 과정에서 좌절이나 불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지만 집단 단위에서의 공동의 노력이나 변화를 위한 실천은 이러한 감정의 극복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어, 실천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의의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에 따라 프로그램 활동에서 의미있는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전문가를 통하여 외부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참여자 내부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 참여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활동의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참여자가 프로그램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규칙은 참여자의 주인 의식 부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과 판단이 불가능한 집단이 아닌 경우 대부분 프로그램의 규칙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동의하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노숙인 쉼터와 같은 시설의 경우 사회 통제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입소자가 통제나 규율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규칙 설정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를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규범적인 행동, 이벤트 행사,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규제, 프로그램의 참여와 탈락에 관한 규율은 함께 논의하고 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남세진(1986)은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한때 집단지도에서

경멸되기도 했으나 사실상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활동 중심의 집단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은 언어보다는 신체를 주로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을 통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자신이 선망하는 구성원과의 동일시나 성숙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Corey와 Corey(1991)은 숙식을 병행하는 집단상담 워크샵을 개최하였는데, 워크샵 과정에서 자기직면과 변화를 가능케하는 도구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상담활동 이외에도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일상생활 활동이 중심이 되었을 때 사회적 가면을 벗는 것이 용이하고, 집단 구성원에서 보다 친밀하게 될 수 있고 양육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험이 일상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계된다고 평가하였다. Corey와 Corey는 참여자 뿐 아니라 전문가의 자아성장 경험도 질 높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집단활동의 성과는 참여자에게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활동과 연계되거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은 대상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노숙인 쉼터의 경우 노숙인의 전반적인 저학력이나 심리적 위축, 사회에서의 실패 경험을 감안할 때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고 보인다. 활동내용의 수준도 고려되어야 할 대상인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변화나 기능을 요구하는 활동 내용보다는 쉼터 생활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행동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작은 성공의 성취 경험은 노숙인 개입 프로그램에서 종종 강조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활동 중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종결되는 내용보다는 쉼터 내 일상생

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 적절할 것이다. 쉼터는 특정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나 변화의 가능성을 일상생활 내에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1999년도 동절기 자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이나 심신 단련 프로그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외에도 실제로 노숙인들의 경우 노숙생활과 사회에서 경험한 좌절과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모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활동을 이용한 프로그램은 심신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숙생활로 인한 무기력감, 의욕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 개입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실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개인별 장애에 대한 임상적 개입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지고 병행되고 있어 노숙인 욕구에 따라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재활프로그램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개인별 문제에 따른 임상적인 개입프로그램과 더불어 활동중심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2-4. 일반생활패턴 경험(experiencing normal living patterns)

Brandt(1999)는 쉼터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통제 위주의 사회기술 습득으로 노숙인이 재사회화되거나 사회복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통제 위주의 과거의 시설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재사회화 과정에서 통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통제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하고자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Blankertz 등(1999)은 정신 장애와 약물남용의 이중진단을 받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서 구조화된 일상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조화된 과정을 통하여 재활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내용은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과 바람직한 상호작용까지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다.

노숙인의 경우 사회로부터 주변화된 인구층이다. 따라서 생애주기별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활패턴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러한 주변적인 생활패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회복귀와 긍정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독립생활의 성취가 어려우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좌절이나 곤란에 쉽게 재노숙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생애주기에 따른 일반 생활 패턴을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쉼터의 생활 패턴이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쉼터 원조환경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로 '일반생활패턴 경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 리듬', '주말생활리듬', '연간생활리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일상생활 리듬¹²⁾

Blankertz 등(1993)은 정신장애 노숙인의 경우 대부분 규칙적 일상생활, 대인관계 시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임참석 규정, 시간 준수 등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같은

12) 생활리듬의 구분은 Nirge(1969)의 정상화 이론의 원칙을 기초하여 재구성하였다.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에서는 구조화된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일상생활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전형적인 생활유형을 따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임의대로 침대에 머무는 것을 금지, 약물사용 방지와 일상생활을 위한 책임감 향상을 위하여 낮 시간 동안에는 침실문 잠그기, 정해진 식사시간, 프로그램에 따른 기대되는 시간과 위치, 텔레비전 시청, 야간통금 등 모든 프로그램을 일일 생활을 기준으로 구조화하고 이 일정은 주 단위로 순환하는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정신장애와 노숙인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구조화나 세부적인 리듬 제공에 보다 세밀한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노숙생활 경험 이후 일상생활 리듬 회복을 위한 개입 필요성이 있다.

노숙인의 생활양식은 그 사회의 전형적인 일반 생활양식과 다르다. 이같은 생활양식의 차이는 노숙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회의 주변에 머무르게 하며 이는 지속성과 악화라는 악순환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노숙인 생활 양식은 그 사회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에 가장 근접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리듬의 습득과 체득이 필요하다.

월요일, 휴가 증후군 등의 용어는 일상생활에서의 일탈 후 기존 생활로 재적응하는 데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이같이 단기적인 일탈도 재적응의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면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식사와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노숙생활을 경험한 경우 이후 일상생활에의 적응시 어려움이 매우 크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일과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되어 진행된다. 그러나 노숙인의 생활은 쉼터 시간, 무료 급식소 등의 시간표에 의하여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식사시간이 자신의 원하는 시간 대보다는 무료급식소의 시간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

다. 이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사회구성원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일상생활 리듬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노숙인 쉼터 운영의 기본 출발은 노숙인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이들이 일상생활 리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일상리듬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리듬은 노숙인이 생애주기 어느 단계에 처해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청·장년 남성 노숙인의 경우 이 시기에는 취업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실직이나 무수입 상태는 사회적 정체성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쉼터는 취업 프로그램의 제공 내지는 지역사회내의 고용시장과의 연계를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생애과업'은 노숙인 쉼터 입소자의 일상생활리듬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과업 설정은 일반 사회구성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는 무리이므로 사회복귀 진행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과업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말생활리듬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경우 주중의 일정과 주말의 일정은 다소 상이하다. 주말은 가족 단위의 휴식이나 개인 여가 등으로 구성된다. 취업을 한 상태인 경우는 주말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으나 주중에 취업이나 사회적 활동이 없을 경우 주말의 일정이 주중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주말 생활 리듬을 구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중에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일지라도 주말 생활 리듬을 단지 수동적인 휴식에서 벗어나 생활의 활기를 줄 수 있는 생활 리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쉼터에서 주말을 겨냥한 운동이나 오락활동과 같은 이벤트를 제공한다

주말 생활리듬과 긍정적인 여가활동 경험이 될 것이다. 컴퓨터 입소자의 여가활동은 휴식시간이라는 차원에서 나아가 무기력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시도라는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무기력과 노숙생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기력은 활동량을 감소시킨다고 할 때 신체를 사용한 활동은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연간생활리듬

연간생활리듬에서는 계절의 변화와 명절 등의 사회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석과 설에 공동차례를 지내고, 계절별로 단합회나 수련회 및 휴가를 가져 야외에서의 계절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는 등의 행사가 바로 연간생활리듬을 고려한 일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행사는 동시대 사회 구성원이 경험하는 관습과 사회적 이벤트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명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생활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노숙자 컴퓨터에서의 명절 행사를 치르는 것은 사회적 소외감을 덜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컴퓨터 입소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질 높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¹³⁾. 명절행사와 같은 컴퓨터 내 행사들은 컴퓨터 인

13) 일반가정의 경우 양육행위는 부모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 컴퓨터의 규율이나 관련 인력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공공양육(public parenting)이 된다. 공공양육은 부모의 사적 양육행위가 공공에 노출된다는 의미이므로 양육형태에 대한 이견 및 갈등, 부모의 권한 침해 등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Kissman(1999)은 컴퓨터에서 거주하는 노숙가족 세대를 위한 캠프 운영은 이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캠프활동은 휴식제공과 입소자들이 일

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입소자들의 의견제시를 포함하는 장치를 고안하여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가와 같은 개별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컴퓨터인력의 적절한 제안과 충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여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계획 및 실행으로 장차 일년 단위의 생활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 가능하였으며, 이외에도 입소자간의 유사한 경험에 대한 정보나 감정에 대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여 상호 지지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같이 캠프 활동을 휴가의 개념과 접목하여 실행한다면, 연간 생활리듬으로서의 휴식기간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컴퓨터 입소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대한 질적인 파악과 입소자간의 지지적 분위기 형성이라는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맺음말: 노숙인 쉼터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

노숙인 문제 대변자들은 쉼터가 바람직한 응급처방이 될 수는 있지만, 노숙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안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응급 서비스 제공은 응급이 내포하는 자원의 단절, 결핍으로 인하여 응급서비스가 현상태를 영속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나아가 삶의 변화를 격려하거나 역량 강화하지 못하여 사회적 단절로 점진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문제에 대한 개입의 방안으로 쉼터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보다 노숙인 쉼터 운영의 역사가 긴 외국의 예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의 Sulzbacher Center 노숙인에게 가정과 같은 따뜻하고 안전한 심리적·물리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주하는 한 노숙인은 쉼터를 자신의 집(home)으로 표현하고 노숙인이라는 정체감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Larson, 1998).

쉼터가 훌륭한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제공할 때 더 이상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집'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시설병(shelterization)'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 그렇다면 과연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쉼터 모형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먼저 노숙인 쉼터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출발하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숙인 쉼터의 목적이 '입소자의 사회복귀', '독립 주거 지로의 영구 이전' 등으로 설정할 때에 지속적으로 쉼터에 거주하거나, 잦은 복귀 등은 쉼터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쉼터가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극빈곤층에게 안전한 주거제공이나 개인의 심리적·정서

적·신체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장치로 기능하는데 의의를 둔다면 '시설병(shelterization)'을 쉼터의 순기능의 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문제를 사회가 책임진다는 기본 입장을 배경으로 존재한다. 사회적 개입은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여기에서 노숙인 쉼터에 개입목적은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듯이 노숙인 문제는 전통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Copenhagen에서 노숙자 쉼터 운영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Brandt(1999)은 극단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개입에서 목표 설정을 반대한다. 평가의 도구와 척도가 될 수 있는 개입목표는 노숙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개입의 효과라는 것이 기존의 평가중심의 개입목적 설정과 결과 분석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회적 일탈행위자에 대한 전통적인 개입과 통제가 역사적으로 실패해왔음을 지적하였다. Brandt은 '노숙'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극단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 근접한 생활 유형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설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자신의 입장을 Brandt은 '낙관적인 허무주의(optimistic nihilism)'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노숙인 문제의 장기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사회적 개입의 결과에서 반드시 사회일반 구성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잣대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개입의 진정한 효과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쉼터는 1999년부터 근로복지(workfare)와 연계된 쉼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근로복지 연계 쉼터 프로그램이 노숙인의 쉼터 이용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입장과 근로복지 연계 쉼터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이득을 가져오며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자의 입장은 모두 타당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숙인 쉼터의 기능은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복지를 우선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같은 전제가 임시방편의 단기적인 내용을 담아서서는 안된다. 여기에 사회적 개입에 따른 가시적이고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는 입장과 장기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노숙인 문제간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노숙인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 지원 환경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노숙인의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쉼터와 같은 자원을 일반적으로 제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숙생활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좌절의 경험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체제 내에서 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외형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라고 보여지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의 해석과 합의가 노숙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인 노숙인 문제 해결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노숙인 쉼터는 이용기간, 이용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목적 등을 기반으로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변화과정에서 외부적으로는 노숙인 쉼터에 대한 관점 변화와 내부적으로는 원조환경으로서의 쉼터 기능 설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노숙인 문제 해결 주요 장으로서의 쉼터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현장의 전문인력이 긴밀히 연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종 (1998).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 남세진 (1986). 「집단지도방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1998). 「노숙의 원인과 양상」
- Sheafor B. W., Horeijsi, C. R. & Horeijsi, G. A. (1997). 「사회복지실천기법과 지침」. 김혜란 감수/서울대 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나남출판.
- Barrow, S. M & Sato, G. (1996). *Closer to Home: An Evaluation of Interim Housing for Homeless Adults*, New York Psychiatric Institute pp. 49-86.
- Blankertz, L. E & Cnaan, R. A. Serving the dually diagnosed homeless: Program development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20.
- Brandt, P. (1999). Reflections on Homelessness as Seen from an Institution for the Homeless in Copenhagen. In D. Avramov(Ed.) *Coping with Homelessness: Issues to be Tackled and Best Practices in Europe*, Ashgate. pp 510-526
- Council On Accreditation of Services for Families And Children (1992). *Manual For Agency Accreditation*. Service Standards. Volume Two.
- Corey, M. S., & Corey, G. (1992). *Groups Process and Practice*, fourth edition.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389-394.

- Erickson, J. & Wilhelm, C. (Eds.) (1986). *Housing the Homeless*. pp. 389-408.
- Fantasis, R & Isserman, M. (1994). *Homelessness: Sourcebook*.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Publication Data. Facts on File.
- Goodman, L., Saxe, L. & Harvey, M. (1990). Homelessness as Psychological Trauma. *American Psychologist*, Nov
- Kissman, K. (1999). Respite from stress and other service needs of homeless famili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5. Jun. 241-249.
- Larson, L. (1998). Rebuilding the lives of the homeless, *Trustee*. 51. 8-13.
- Linsey, W. E. (1998). Service providers' perception of factors that help or hinder homeless families, *Families in Society*, 79. 371-396
- Monaha, J. I & Vaux, A. (1980). Macroenvironment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n P. M. Insel(Ed.),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Prevention of Mental Illness*, Lexington Books. 27-31
- Miller, E. D. (1998). Experiencing Homelessness, *Journal of Contemporary*, 27. 422-427.
- Nielson, L. A & Scarpitti, R. F.(1997), Changing the behavior of substance abusers: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rapeutic communities, *Journal of Drug Issues*, 27. 279-298.
- Nirge, B. (1969). The normalization principle: Implication and comments, *Journal of Mental Subnormality*, 16
- Peace, S. M., Kellaher, L & Willcocks, D. (1982). *A Balanced Life? A Consumer Study of Residential Life in 100 Local Authority Old People's Home*, Research report, No. 14. Social Research Unit.

- Polytechnic of North London.
- Sheehan, N. W. (1992).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Senior Housing, Working with Elderly Residents*, Sage Publication.
- Wolfensber, W. (1972).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with Additional Text by Bengt Nirge/Simon Olshansky/Robert Perske/Philip Roos*.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노숙인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원칙과 과제

신 원 우¹⁾

1. 머리말

1998년부터 본격적인 노숙인 지원사업이 시작된 후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우선, 희망의 집, 자유의 집 등 노숙인을 위한 임시 숙소가 마련되고 공공근로를 비롯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어 IMF 관리 체제 이후 실직한 노숙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쉼터 중심으로 사회적응과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숙인 지원 사업 초기에 실시되었던 임시보호 중심의 서비스에서 재활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된 것이며,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노숙인 집단을 대상으로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IMF 관리체제 이후 증가한 거리 노숙인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역, 을지로, 종로 등에서의 거리 노숙이나 무료 급식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거리 노숙인 집단은 대체로 쉼터에서 생활했다가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소한 노숙인, 알코올의존 및 정신장애 등 개인의 장애로 쉼터 입소를 거부한(또는

1)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거부당한) 노숙인과 최근에 노숙을 시작하여 아직 쉼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노숙인 집단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거리 노숙인 집단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최빈곤층이며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즉 가장 긴급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다.

한편 거리 노숙인 집단과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는 잠재적 노숙인 집단으로 일명 쪽방에서 거주하는 도시빈민 집단을 들 수 있다.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1999)에 의하면 서울에 3,700여개의 쪽방이 있으며, 주로 일용직이나 행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쪽방이 특히 노숙과 연관을 갖는 것은 바로 거리 노숙인들의 상당수가 이전에 쪽방에서 거주하는 빈민이었으며, 노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결국 쪽방 거주자 집단의 사회복지적 욕구는 거리 노숙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쪽방 골목에 간이화장실과 간이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화기 지원과 전기검침, 방화점검 등을 실시하고, 취업 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무료급식단체의 연결 등 복지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활동을 시작하는 방침을 세웠으며(한겨레신문, 2000년 1월 4일), 2000년 4월 현재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에 “쪽방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중에 있다(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외, 2000).

사회복지실천이 욕구를 가진 개인과 집단에 대한 즉각적인 전문적 원조 활동이라고 한다면, 바로 거리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의식주와 의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정보 제공, 상담 등 현장 중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노숙인에 대한 핵심적인 사회복지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센터(drop-in center), 무료 식당(soup kitchen), 쉼터 등이 전혀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욕구를 가진 노숙인이 접

근하기 쉬운 현장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종교 및 자선 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 급식이나 의료 서비스, 상담 등이 거리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매우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소수의 노숙인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은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거리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거리 노숙인들이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서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하여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한편, 제한적이지만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한국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어떤 목표와 활동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필요성

2-1. 거리 노숙의 문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1차적인 대상은 쉼터가 아닌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이다. 물론 많은 연구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단 쉼터에 들어가면 의식주는 물론 의료나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1차적 대상인 거리 노숙인이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거리 노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차적으로 기본적 욕구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리에서 생활하여 나타난 결과인 의식주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거리 노숙인들은 최빈곤층이며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집단이다. 우리나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취업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형태(1998)²⁾의 연구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서 잠자리 문제와 식사 문제가 전체 26.4%로서 취업(61.1%)에 이어 두번째에 해당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³⁾의 연구에서도 의식주에 대한 욕구는 31.6%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서울역 노숙자 상담소(1998)⁴⁾,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1998)⁵⁾의 상담사례분석에서도

2) 김형태의 연구는 1998년 5월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72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이다.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1998년 6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등의 7개 현장 상담소에서 거리 노숙인 2,593명을 대상으로 상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밝혀진 결과이다.

4) 서울역 노숙자 상담소의 상담사례분석은 1998년 4월부터 7월까지의 1,063명의 노숙인에

같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⁶⁾ 여기에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건설 일용 등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이른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 자체가 바로 의식주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식주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거리 노숙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접근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거리 노숙인의 건강 관련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거리 노숙의 특성상 청결 유지의 어려움, 집단 급식, 불안정한 주거 공간, 심리적 위축, 음주 등의 이유로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다른 문제보다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⁷⁾ Balazs(1993)는 영국 런던 지역의 거리 노숙인이 겪게 되는 건강 관련 문제로 호흡기 질환, 결핵, 우울증, 불안 같은 정신장애, 피부병, 감기,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과 문제, 영양실조,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한 거리 노숙인의 약물 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AIDS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Tommasillo 외, 1990).

대한 상담사례분석 내용이다.

5)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의 상담사례분석은 1998년 9월부터 12월까지 2,385명의 노숙인에 대한 상담사례분석 내용이다.

6) 거리 노숙인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노숙인 지원사업의 초기인 1998년에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거리 노숙인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최근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노숙인 번사발생 현황에 따르면, 1999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서울역 노숙인 64명이 역주변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영양결핍에 따른 폐결핵이나 장과열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90% 가량으로 파악되었다(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

우리나라의 거리 노숙인의 건강 문제를 보고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1998)에 의하면, 울지로 지역 노숙인들의 전체 질환에 대한 추정 유병률은 19.38%이었고, 그 중에서 감기 유병률이 5.11%, 위장관 질환이 3.61%, 피부병이 2.64%, 근골격계 질환이 2.45%이었으며, 결핵 유병률은 0.27%이었다. 또한 알코올 의존과 관련하여 쉼터 노숙인보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2.0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쉼터 노숙인들의 정신·심리적 특성 수준은 일반인구집단과 차이가 없지만, 서울역과 울지로 거리 노숙인들의 정신·심리적 특성 수준은 일부 증상 차원에서 일반인구집단의 그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쉼터 노숙인을 기준으로 서울역 노숙인들은 3배정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았으며, 4.2배정도 공포심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거리 노숙인 집단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집단의 차이는 개인적 변수와 환경적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변수로서 거리 노숙인 집단 중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노숙인만이 쉼터에 입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쉼터 입소의 자격과 절차에서 비교적 노숙기간이 짧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입소시 건강상태 검진 결과 건강한 사람만이 입소하게 되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환경적 변수로서 거리와 쉼터라는 환경의 차이가 노숙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거리 노숙인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집단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거리 노숙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거리라는 환경 자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결과, 거리 노숙인의 경우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집단보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또한 쉼터의 경우 긴급한 의식주 문제의 해결과 사회복지사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절한 의료적 문제의 대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쉽게 대처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거리와 쉼터 노숙인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2가지 설명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없어서 어떤 설명이 타당한지는 밝히기 어렵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거리 노숙인 집단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집단간의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에서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2-2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리 노숙의 문제점 또는 거리 노숙인 집단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집단간의 비교를 다루고 있지만, 거리 노숙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 또한 아웃리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거리 노숙인들이 기존의 서비스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거리 노숙으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손상과 사회관계망 단절의 문제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기본적 욕구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노숙의 고립과 소외로 인한 실패와 스트레스가 축적되면서 노숙인 개인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 낮은 자존감이 주는 무가치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직업적, 사회적, 여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취업, 주거, 기타 필수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를 저해하며, 이러한 만성적 실패는 알코올과 약물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된다(DiBlasio & Belcher, 1993). 그리고 Fuhr(1996)는 노숙인들이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맹, 신체 및 정신 장애, 과거 학대 경험, 일상의 위협, 자원의 부재 등으로 인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제약으로 인해 거리 노숙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며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노숙인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노숙인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이 거리 노숙인들의 서비스 접근을 더욱 못하게 하는 요인을 들 수 있다(Balazs, 1993).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거리 노숙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노숙인 치료의 어려움과 장기입원, 노숙인의 치료거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인해 노숙인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않는다(Shever 외, 1991; Balazs, 1993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인적 및 환경적 문제로 인하여 거리 노숙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욕구에 의하여 거리 노숙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사정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DiBlasio와 Belcher(1993)는 거리 노숙인의 고립과 소외로 인한 실패와 스트레스, 이에 따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칫 편집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기 쉽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경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입원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에서의 노숙인에게 접근하고 사정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 노숙인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3.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의미와 제공되는 서비스

3-1.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의미

아웃리치(outreach)⁸⁾란 서비스 제공자가 노숙인들에게 서비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아웃리치가 아니면 노숙인들은 서비스나 정보를 얻기 힘들거나 유용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웃리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Fantasia & Isserman, 1994). 즉 아웃리치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에 처한 개인들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상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많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많은 연구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에 관련하여 표적 대상과 주요 사회복지실천 활동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Axleroad와 Toff(1987)는 아웃리치를 다른 치료와 서비스에 대한 정신질환 노숙인의 접근을 높이는 하나의 서비스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대상과 의뢰/연결/연락에 대한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Morse 등(1996)은 위기 개입과 사례 관리의 많은 요소가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겹친다고 주장하면서 비전문적인 세팅에서 정신 및 신체 건강, 사회적 기능, 대인 서비스와 자원의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질환 노숙인을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접촉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좀더 포괄적인 접근을 주장하였다.

8) 영어의 'outreach'는 동사로서 '...의 끝까지 달하다, 을 넘다, 을 능가하다'와 명사로서 '손을 뻗기, 최선을 다하는 봉사 [활동]'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동아 프라임 영한사전(제3판), 1993).

Oakley와 Dennis(1996)는 노숙인의 서비스와 치료에 대한 관여는 아웃리치를 통하여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아웃리치는 비위협적인 접근, 제공되는 서비스와 방식에 있어서의 유연성, 직접 접촉을 통한 서비스의 전달, 음식, 금전, 주거 등 개인의 욕구에 대한 긴급한 반응, 치료와 서비스 수용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바로 잠재적 클라이언트인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를 탐색하고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들은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로서 기차 및 지하철 역, 터미널, 광장, 공원, 무료 급식소 주변, 긴급 쉼터 등을 지적한다(Morse 외, 1996; Freimanis,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역, 영등포역, 종묘공원, 을지로지하철 통로 등을 대표적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활동 장소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지역은 무료 급식, 무료 진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동시에 기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긴급 쉼터(emergency shelter)가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활동 장소가 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서구의 사례와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서구의 경우 긴급 쉼터는 말 그대로 짧게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숙식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희망의 집을 비롯한 각 쉼터는 숙식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등 취업 알선, 재활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활동 장소가 되기 어렵다.⁹⁾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 아웃리치 프로그

9) 물론 우리나라의 쉼터가 서구의 긴급 쉼터와 비교하여 각종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노숙인의 자활과 재활에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 노숙인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긴급한 상태이므로 1차적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활동 장소는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램의 1차적 활동장소는 긴급 쉼터를 제외한 장소로 한정한다.

3-2.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서비스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제공받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는 노숙인들에게 긴급한 필요(need)를 제공한다. 이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둘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중요한 서비스로서 정보 제공과 서비스 기관 의뢰가 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의 해결, 쉼터, 취업 등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들에게 아웃리치 프로그램 팀이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에 의뢰하고 노숙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정하고 연락한다. 셋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현장 상담, 재활 프로그램 실시, 사례관리 등 대면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거리라는 환경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상담실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상담이나 재활 프로그램 실시 등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현장 상담은 기존 시설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원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부가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서비스로서 거리 노숙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조사가 있다. 이는 시기(계절)에 따른 욕구 파악과 Follow-up 조사 등을 포함한다. 특히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정신질환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 후에 거리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follow-up 조사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팀의 협조하에 가능하게 된다(Freimanis, 1993; Morse 외, 1996). 다섯째,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타 구체적 서비

스로서 전화, 교통, 이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숙인들이 의뢰된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연락하는 데 유용하다. 때로는 거리에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면도기, 칫솔, 비누 등의 생필품을 나누어주기도 한다(Tommasillo 외, 1990). 마지막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노숙인 권리를 위한 홍보 및 옹호, 캠페인을 포함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거리 노숙인의 경우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부 노숙인의 경우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관찰되기 때문에 선입견과 수치심으로 인해 서비스 체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거리 노숙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인에게 원조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거리 노숙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위한 역량강화(empowerment)를 목표로 자조집단,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원조하는 것도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Fuhr, 1996).

4.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사례

4-1. 서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사례

많은 연구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이나 효과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대도시의 시정부와 민간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활동과 서비스 연계, 정신장애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연계 아웃리치 프로그램, 영국 런던의 음주 위기 센터에서 실시한 음주문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뉴욕의 아웃리치 프로그램¹⁰⁾

아웃리치 팀과 방문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알리고 이를 이용하도록 거리의 노숙인들을 찾아 다닌다. 뉴욕시에는 40개 이상의 아웃리치 팀과 8개의 방문센터(drop-in center)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2,500명 이상의 노숙인이 급식을 비롯하여 상담이나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러 아웃리치 기관들이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Homeless Outreach Task Force는 팀들간의 교류와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여준다.

최근에, 이들 아웃리치 기관들이 보호소를 거치지 않고도 약물중독치료 시설이나 다른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노숙인을 직접 입소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대규모의 보호소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소규모의 방문센터나 아웃리치 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서비스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아웃리치 기관이나 방문센터들도 최대한 한 달까지 머물

10) 본 내용은 홍선미(1998)의 "미국 홈리스의 실태와 대책"에서 발췌함.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두어 일반 보호소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노숙인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임시로 머물게 하고 있다.

한편, 뉴욕의 민간 기관의 노숙인 관련 서비스와 관련하여 뉴욕의 아웃리치 서비스팀(Midtown Outreach Program, Mobile Outreach Services)들은 사회복지사, 의료전문가(정신과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사), 운전사 팀으로 구성되어 터미널, 공원 등을 다니며 음식, 옷 등을 나누어 주고, 정신과적 서비스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계시켜 주고 있다. 전화 Hot line을 통해서도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으며 연 인원 약 2-3천명에 대한 서비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리에서 노숙인들이 보호소나 방문 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받기까지는 평균 6-9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동안 1-40회 정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 미국의 정신건강 연계 아웃리치 프로그램¹¹⁾

4-5명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전문사회복지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이나 잠재적으로 노숙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웃리치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노숙인의 사회적 기능, 주거에 대한 기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욕구를 사정하고, 주거와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진 후 구체적 서비스는 의뢰된 기관뿐만 아니라 거리, 임시 주거시설, 지역사회 내 기타 장소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제공된다. 사회복지사는 독립 생활이 가능한 임시 및 영구적 주택을 얻도록 원조하며, 소득 보장(공공부조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고,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사회기술에서의 훈련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11) 본 내용은 Mowbray & Bybee (1998)의 내용을 발췌함.

임상 서비스,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일단 서비스를 받게 되는 클라이언트가 그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목표는 지속적인 서비스 체계 안에서 개인이 통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하에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치료자와 사례 관리자에게 의뢰된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과도기에 클라이언트가 의뢰된 전문가를 신뢰하도록 하며 더 이상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도록 원조한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어느 시점이든 다른 아웃리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다른 전문가에게 재의뢰할 수도 있다.

3) 런던의 음주문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¹²⁾

1990년 음주 위기 센터(Drink Crisis Centre)는 거리에서 음주하는 노숙인 집단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은 음주하는 거리 노숙인 집단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알코올 서비스 제공간의 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런던 동부 노숙인 건강 프로젝트(East London Homeless Health Project: HHELP)』의 지역사회 알코올 전문사회복지사는 9개월 동안 800번의 접촉을 통하여 알코올 문제를 경험하는 노숙인들을 확인하였다.

아웃리치 팀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의 특성에 맞춰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설정하였다. 우선 목표로는, 첫째 서비스 제공의 일관된 연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알코올과 노숙 분야에서 일하는 기관과 전문가들과 접촉하기, 둘째 알코올의존 문제를 가진 노숙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장 서비스(street service)”를 제공하기, 셋째 거리 공동체(street community)를 조정하고 존경과 신뢰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

12) 본 내용은 Freimanis(1993)의 내용을 발췌함.

기, 넷째 특정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절한 기관을 찾고 의뢰하기, 다섯째 알코올의존 문제를 가진 노숙인에 대한 개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나 선입견에 도전하고 직면하기 등이다.

계획 단계에서는 접근성(access)과 긴급성(immediacy)의 2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접근성은 노숙인들이 음주 위기 센터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예를 들어 과거에 정신건강문제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함)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꺼리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또한 긴급성은 임시 숙소나 취업과 관련한 욕구를 가진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과 연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시점에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서비스 형성 단계를 거쳤는데, 처음 두달 동안에는 거리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런던의 주요 기관들을 방문하여 현재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의뢰할 수 있는 연계를 조성하였다. 실제적인 서비스는 우선 이미 표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활치료 팀과 연계하여 좀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웃리치 팀의 고립을 예방하고 자원이 배분되었을 때 누락되기 쉬웠던 음주 문제 노숙인의 프로파일용을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 서비스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에 정기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최대한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기 위하여 노숙인들이 많이 모인 장소로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기 위하여 지역과 시간대를 나누어 각각 다른 아웃리치 팀이 접근하도록 하였다. 대개 2명씩 짝을 지어 소규모 팀을 만들었는데, 특히 늦은 저녁에는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 사회복지사들만으로 구성된 팀은 나가지 않았다. 긴급하게 의뢰해야 할 클라이언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익명성과 안전감을 최

대한 배려하였다. 일단 음주위기 센터에 들어온 후 하루밤에서 4주 동안 임시로 머문 다음 심층적인 치료나 호스텔 등으로 옮겨가게 된다. 나머지는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거리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에 음주 문제 노숙인에 대한 선입견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젊은 여성이나 나이든 남성, 며칠 밤 동안만 거리에 있었던 사람과 몇 년동안 있었던 사람, 다양한 사회적 계급 출신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4-2 한국의 아웃리치 프로그램 사례

한국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역사도 짧고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선, 정부의 노숙인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실시되었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종교 및 자선단체의 무료 급식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들은 다른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등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음식을 직접 운반해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무료 급식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활동은 IMF 관리체제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노숙인 지원 사업으로 인해 거리 노숙인이 줄어든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좀더 전문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글로벌케어 등의 의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건강 검진, 진료 및 투약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들은 일정 기간 또는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고 소속 의료진들이 직접 무료 건강 검진, 진료를 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제공하거나 병원으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거리 노숙인 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심포지엄을 통하여 의료 실태와 정책 대

안을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 일정 기간 또는 정기적인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숙인 쉼터를 소개하고 안내하며 필요하다면 교통편과 전화 통화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1998년 봄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서울역 노숙자 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과 취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노숙인 지원 사업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가 개소하여 무료 숙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가 개소되고 100여개의 노숙인 쉼터인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이 개소되면서 노숙인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역, 을지로 지하통로, 영등포 역 등에 현장 상담소를 설치하고 야간에 쉼터 입소와 정보 제공의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야간이라도 쉼터에 입소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미니버스를 대기시키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탑승하여 쉼터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쪽방 현장 조사팀이 구성되어 잠재적인 노숙인 집단인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생활 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다. 좀더 특수한 형태로는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의 「순회재활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한 욕구를 가진 노숙인이 모인 쉼터에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인관계 집단 프로그램, 자존감향상 집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클라이언트들이 프로그램이 있는 특정 장소로 옮기지 않고도 적절한 시간에 자신들이 있는 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랑의전화복지재단에서는 서울역 광장에서 <사랑의 전화 달리는 첨단복지정보센터>라는 이동버스를 이용하여 취업 정보 제공과 각종 이벤트를 노숙인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사랑의전화 부설 실직노숙자문제연구소, 1999).

현재까지의 한국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서구의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비교한다면,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우선 특정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의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나 치료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전무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폭음으로 인해 긴급히 해독을 해야 되는 알코올의존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해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독센터 같은 기관으로 의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위하여 특정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 파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5.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원칙과 과제

5-1. 원칙

이상에서 살펴 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원칙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원칙에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원칙과 아웃리치 팀의 구성에 대하여, 과제에는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의 활동 과제와 임상적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목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프로그램들이 어떤 장소의 어떤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목표로서 Erickson과 Page(1998)가 제시한 4가지 아웃리치 목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욕구에 대한 보호를 현장에서 제공한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의식주와 의료와 관련한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웃리치 팀과 클라이언트간의 신뢰있는 관계를 개발한다. 많은 연구에서 거리 노숙인과 아웃리치 팀의 신뢰를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Fuhr, 1996; Freimanis, 1993; Morse 외, 1996). 우선적으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해진 시간

에 일정한 장소에 변하지 않게 아웃리치 팀이 방문하여 노숙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에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노숙인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위기에 처했을 때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웃리치 팀을 기다리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뢰있는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 수단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요한 목표가 되며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자원을 직접 제공한다. 노숙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실질적인 아웃리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와 자원은 매우 다양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나름대로 아웃리치 팀에서 결정해야 한다.

넷째, 클라이언트를 주요 서비스에 의뢰하고 연결한다. 거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거짓된 정보와 소문에 접하게 되어 노숙인의 행동과 생각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아웃리치 팀은 클라이언트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면 아웃리치 팀의 의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이상의 4가지 목표에 다른 사항들을 추가하기도 한다. Freimanis의 연구(1993)에서 살펴 보듯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경우 알코올의존 노숙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과 음주 위기 센터 같은 적절한 기관과의 연계, 알코올의존 노숙인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도전 등의 목표가 추가된다.

2) 아웃리치 팀의 구성

아웃리치 팀은 다학문적인 전문가의 혼합팀이 이상적이다. 우선 아웃리치 팀의 운영과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정보 제공, 전문적인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적절한 건강 검진과 진료, 투약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숙인의 심리 상태의 사정을 위한 임상심리사, 적절한 영양을 측정하고 제공되는 음식물에 대한 검토를 위한 영양사, 이동 차량 운전사 등이 필요하다. 만일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어느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표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좀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개입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들이 아웃리치 팀에 합류할 수 있다(Freimanis, 1993). 비전문가들은 주로 자원봉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 성직자, 변호사, 단주모임 멤버, 이미용사, 특정 직종 종사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팀의 경우 이전에 알코올의존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단주를 통하여 회복중에 있는 단주모임 멤버를 포함시킬 수 있다. 또는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건설 일용 노동직에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직종보다도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을 아웃리치 팀에 포함시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정보와 의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미용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사나 미용사 등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할 수 있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원들에 대한 인구학적 기준은 따로 없지만, 아웃리치 팀의 안전과 효과를 위하여 2인 1조로 구성하며, 밤 시간대에는 되도록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imanis, 1993).

5.2.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의 구체적 활동¹³⁾

1) 접촉과 신뢰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노숙인이 어디에 많이 모여있는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그곳으로 이동하여 노숙인을 접촉하는 것이 첫 번째 활동이다. 새로운 장소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아웃리치 프로그램 활동을 찾아 연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노숙인들이 이전에 신뢰를 구축한 서비스 제공자(예, 자선단체 직원)와 연계하거나 최대한 친숙함과 안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2) 특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확인하기

일반적인 노숙인보다는 우선 정신장애나 알코올의존, 건강문제 등의 특정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노숙인에 대한 우선적인 아웃리치 팀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정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많은 노숙인들은 공식적 정신과 사정에 참여하기에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웃리치 사회복지사가 비공식적이고 덜 전통적인 절차로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 등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에 의한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한데, 이것은 대인관계 기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좀더 미묘한 단서를 사정할 수 있다. 비공식적 대

13) 아웃리치 팀의 구체적 활동과 과제와 관련하여 Morse 등(1996)의 연구를 요약, 발제한 내용이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서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지만, 본 연구자는 이 내용이 일반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과 과제라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포함시킨다.

회에서 클라이언트에 관여함으로써 망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같은 다른 문제들의 단서를 밝힐 수 있다. 일단 신뢰가 생기면,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현재 문제나 치료 경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또한 전문적 정신 건강 진단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정신과 사정은 긴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3) 관여(Engagement)

노숙인에게 접근하고 관여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다. 잠재적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어떻게 사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많은 노숙인들은 (정신장애인/부랑인) 시설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웃리치 사회복지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클라이언트를 유도하는 접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아웃리치 사회복지사가 때때로 너무 수동적이거나, 서비스 탐색에 대한 욕구에 대해 무시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끼어드는 것을 두려워서 노숙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위협적이지 않은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대화 속에서 잠재적 클라이언트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동안에,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 증상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영향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사정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강요의 느낌을 보인다면, 사회복지사는 한발 물러서서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반응이 없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클라이언트는 초기에 이야기가 확대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마음을 개방할 수 있는 여유를 수용하고, 도달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인정하면서 간단한 만남을 통하여 여러 번 관계가

진행되도록 허용한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기본적 욕구(음식, 의복, 화장실)에 대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몇몇 거부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여를 촉진할 수 있다. 행동을 위주로 하는 만남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는 거리의 클라이언트들과의 신뢰있는 관계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레크리에이션 운영자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일단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믿고 토론하기 시작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한 문제에 대해 도움이 제공됨으로써 관여가 촉진될 수 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단기적 문제 또는 구체적 문제의 해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의복이나 개인 소유물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사나 의사에게 연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4) 사정과 서비스 계획

아웃리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는 (a) 클라이언트 욕구, 선호, 목표, (b) 목표에 상응하는 자원과 서비스(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현존지지 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를 확인하는 서비스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사정은 명확한 문제(주택과 정신과적 증상)뿐만 아니라 좀더 미묘한 문제(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의미있는 행동에 대한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다.

비공식적이면서 신뢰있는 과정을 거친 사정 절차는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현장 관찰, 클라이언트와의 합의에 기반한 초기 사정을 공식화해야 한다. 좀더 공식적이면서 특정화된 (즉, 의료적 또는 정신과적) 사정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신뢰있는 관계가 조성되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지속적인 서비스 활동

광범위한 범위의 서비스 개입이 독특한 욕구와 환경에 따라 노숙인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3가지 영역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3가지 활동에는 서비스 연계, 상담, 지속적인 관계 개발이 포함된다.

① 서비스 연계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의 주요 과업은 클라이언트를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필요한 자원은 아웃리치 팀이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많을 수 있다(예, 사회보장제도, 바우처(voucher) 제도 등). 따라서 연계 활동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받도록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나 시설에 대한 간단한 말로만 하는 의뢰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단체 생활을 거부해서 기존 서비스와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스스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기관에 도달하는 교통편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서비스 연계 기관에 직접 데려다 주거나 직원과의 면담을 거치게 해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불편과 거부감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또한 시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연계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은 까다로운 신청 절차, 거친 노숙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직원의 수동적인 태도,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관료적 비효율성, 장기적인 대기 리스트(waiting list)와 클라이언트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자원 등이다. 결과적으로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은 언어를 통한 의뢰, 교통편 제공, 클라이언트 동

행, 신청과 면담에 대한 원조, 클라이언트 욕구의 문서화 제공을 포함한다.

행정적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을 옹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중요한 자원을 조절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좀더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데 유용한 심리치료가 있는 것(비록 파트타임이라도)은 공공 정신 건강 클리닉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도록 조정하는 노력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공식적 정신건강 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약속시간을 잡기 전에 긴 시간동안 기다려야 한다거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 등 기관 정책을 포함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 상담 활동

상담 활동은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담 활동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새로운 기술과 태도를 학습하고 다른 생활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상담 스타일에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상담 회기"의 길이, 공간, 위치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때때로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자동차 치료(car therapy)"-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적응 전략을 토론하기 위하여 차로 운전해 주는 기회를 사용함-를 수행할 수 있다. 유사하게, 지시적이거나 비지시적인 접근은 내용과 주어진 문제의 긴급성에 따라 혼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긍정적인 존경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을 사용한다. 한편,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어떤 행동과 경험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접적인 접근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관계를 유지하기

초기의 관여 활동은 클라이언트에 접근하고 신뢰를 개발하고 활동 연합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용하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은 잘 나타나지 않으며 관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계 서비스와 상담 활동을 제공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치료적 활동 연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만남에서 지속적으로 보호적이고 공감적이어야 하며, 기꺼이 그들 자신의 영역에서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체계 문제와 클라이언트 이슈 때문에 과정은 천천히 진행될 수 있으며,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질환 노숙인은 위기에 취약하며 서비스 목표와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유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

5-3. 아웃리치에서의 임상적 이슈

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독특한 형태이며, 임상적 이슈와 복잡한 임상 판단과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임상적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사정할 수 있고 임상적 이슈를 알아야 한다. 다음은 아웃리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상적 이슈에 대해 소개한 것이다. 이러한 임상적 이슈를 미리 예상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효과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실패에 대한 좌절과 새로운 희망

많은 노숙인들은 과거의 실패에 대해 좌절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개인이 다시 희망을 가질 때, 그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마술처럼 일어날 수 있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희망을 주입할 필요가 있지만, 상당한 시간, 노력, 인내가 필요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책임감, 의존감, 자율성 이슈

잠재적 클라이언트인 노숙인은 강한 의존 욕구를 보인다. 어떤 클라이언트는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유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치료적 성장에 대한 책임감을 사회복지사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a) 신뢰와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초기 관계, (b) 긴급한 위기의 시기, (c) 매우 낮은 기능을 가진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책임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가 책임감을 적절하게 취하는 방법은 자원 접근에서의 직접적 원조 제공, 긴급한 클라이언트 위기의 시기에서 “또 하나의 자아(auxiliary ego)”로서 기능하는 것을 포함한다. 후자의 활동은 클라이언트가 중요한 판단을 하도록 돕고 필요한 필수적 활동(요리, 청소, 약 먹기, 병원가기)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의 장기적인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하여, 그리고 직원의 소진(burn-out)을 피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고(때때로, 클라이언트의 의존에 대한 요구를 의식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함), 독립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와 계획을 짜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경험으로

부터 습득한 능력을 시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좌절과 분노는 피할 필요는 없다. 클라이언트 의존과 자율성간의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패턴, 장애의 경과, 관계의 국면을 이해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3) 유연성과 한계설정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전형적으로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계가 없다면 임상적 및 자원 개입의 전반적인 효과는 사회복지사가 점차 지치면서 줄어들게 된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성장에 필요하다. 한계는 때때로 좀더 자율적인 대처를 개발하고, 전체로서 경계와 자아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한계 설정을 통하여 클라이언트가 점차적으로 좀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를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 교통편을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관에 직접 가도록 한다.

또한, 한계를 부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건강한 사회복지사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는 결국 공감 보다는 비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내적인 혼돈과 위기감으로 반응한다. 이럴 경우 슈퍼바이저와 동료 아웃리치 사회복지사가 현실적인 한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위기 시기에 직접적 서비스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활동을 재조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슈퍼바이저는 일선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고(과도한 시간의 근무를 피하는 것), 간접적 서비스 자격요건도 만족시킬 수 있는 스케줄을 개발하고,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임상적 슈퍼비전과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전통적인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저항"

많은 노숙인은 비자발적인 현신과 정신과 치료의 부작용을 포함한 이전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전통적인 정신건강 치료나 시설 보호에 저항한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동조를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초기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인식한 욕구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긍정적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웃리치 사회복지사의 의견은 좀더 중요해지고 신뢰를 받게 되며, 좀더 공식적인 정신건강 치료나 시설보호를 받으려는 생각이 생길 수 있다.

때로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의존을 부정하는 클라이언트와의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에 대한 욕구를 토론하면서, 교육적이면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도움이 된다. 정신과적 치료는 노숙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대한 도움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치료에 대한 경험과 관심사에 민감해 있어야 한다.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약물 복용 수준과 부작용에 대해 정신과 의사와 토론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를 초기에 거부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나중에는 전통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수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기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또한 아웃리치 사회복지사는 전통적인 정신과적 치료에 반대하는 노숙인이 자신 생활의 중요한 영역(자신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주거와 소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6. 맺음말

이상으로 노숙인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성과 의미, 서구와 한국의 사례, 원칙과 과제를 중심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과 연구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많은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신뢰를 통하여 노숙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노숙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의존 노숙인을 거리에서 접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해독하고 알코올의존에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전문 쉼터 또는 병원에 의뢰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거리 노숙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 따라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와 기관, 특히 방문센터(drop-in center)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느 한 시기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만나는 노숙인들의 이름과 안면을 알 수 있어 충분한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효과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아웃리치 팀에 주요 구성 인력으로 포함시키고 일관된 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영양사, 취업 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중복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소규모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너무 비체

계적으로 실시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프로그램하고 있는 아웃리치 팀간의 정보 및 인력 교환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거리 노숙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하여금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거리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uhr(1996)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책자에서 노숙인 나름대로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공동체(community)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 알코올 및 약물 의존에 대한 자조집단 형성, 예술 치료와 작품 발표, 훈련과 격려를 통한 공동 지도자(peer leadership) 개발 등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서비스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에도 단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단순한 말벗에서 구체적 서비스의 전달, 서비스 체계로의 의뢰와 연계, 그리고 의존감과 수치심을 버리고 지역사회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을 통한 역량강화 서비스까지 클라이언트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에 따라 발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신뢰 관계의 구축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형태 (1998). 「무주거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1998). 「98년 다시서기지원센터 사업보고」.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_____ (1999). 「99년 다시서기지원센터 사업보고」.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사랑의 전화 부설 실직노숙자문제연구소 (1999). 「실직노숙자보고서」.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서울역 노숙자 상담소 (1998). 「서울역 노숙자 상담소 활동 보고」. 미발간 보고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98). 「노숙자 건강실태 조사보고서」.

전국실직노숙자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한국도시연구소·보건복지부 (2000). 「한국의 노숙자 : 2년의 흐름과 진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도시노숙자 실태」.

홍선미 (1998). “미국의 홈리스 실태와 대책”. 김수현·전홍규·홍선미 편. 「영국·일본·미국의 홈리스 실태와 대책」.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연구보고 98-01.

Axleroad, S. F., & Toff, G. E. (1987). *Outreach services for homeless mentally ill people*.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Balazs, J. (1993). Health care for single homeless people. In K. Fisher, & J. Collins(eds.). *Homelessness, health care and welfare provision*. London: Routledge.

DiBlasio, F. A., & Belcher, J. R. (1993). Social Work Outreach to Homeless People and the need to address issues of self-esteem. *Health & Social Work*, 18(4), Nov. 281-287.

Erickson, S., & Page, J. (1998). To Dance with Grace: Effective Outreach and Engagement to Persons on the Streets. In: *Presented at the National Symposium on Homelessness Research Washington D. C*

Fantasia, R., & Isserman, M. (1994). *Homelessness: A Sourcebook*. NY: Facts On File. 136-137.

Freimanis, L. (1993). Alcohol and single homelessness: An outreach approach. In K. Fisher, & J. Collins(eds.). *Homelessness, health care and welfare provision*. London: Routledge.

Fuhr, M. E. (1996). *No Place To Stay : A Handbook for Homeless Outreach*.

Morse, G. A., Calsyn, R. J., Miller, J., Rosenberg, P., West, L., & Guiland, J. (1996). Outreach to Homeless Mentally Ill People: Conceptu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2(3), June. 261-274.

Mowbray, C. T., & Bybee, D. (1998). The Importance of Context in Understanding Homelessness and Mental Illness: Lessons Learned From a Research Demonstration Project.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8(2), 172-199.

Oakley, D., & Dennis, D. L. (1996). Responding to the Needs of Homeless People with Alcohol, Drug, and/or Mental Disorders. In J.

●노숙인복지연구 제 1호

- Baumohl(ed), *Homelessness in America*. Phoenix, Arizona: Oryx Press.
- Shever, M. A., Black, M., Victor, C., Benzeval, M., Gill, M., & Judge, K. (1991). *Homelessness and Utilization of Acute Hospital services in London*. London: Kings Fund.
- Tommaslo, A. C., Myers, P., Gillis, L., Treherne, L. L., & Plumhoff, M. (1990). Effectiveness of outreach to homeless substance abuser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2, 295-303

국민일보 “노숙자 주 1명꼴 죽어간다” 2000년 5월 24일자.
한겨레신문. “도시빈민 잠자리 ‘쪽방’ 개선” 2000년 1월 4일자.

노숙문제에 대한

외국문헌 발췌문

...노숙인복지연구회에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아 내용기 부끄럽지만 공부하시는 분들겐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하여 실어보았습니다. ...

교육과 노숙인에 대한 태도간 관계¹⁾

- 사회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보수주의 -

개요

정치사회학의 핵심목적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 신념, 지향을 형성하는 사회적인 힘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 좀더 특수하게는 교육이 정치적 태도의 주된 초점들이었다. 그간 수많은 연구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자유주의적 사회태도¹⁾를 갖는다고 했지만, 이러한 상관관계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 본 글에서는 노숙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있어 교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 모델을 비교검증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발달모델, 사회화모델, 이념수정모델 중 사회화모델이 교육과 태도간 관계를 설명하는 데 타당한 모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Phelan, Jo; Link, Bruce G; Stueve, Ann; Moore, Robert E(1995), Education, social liberalism, and economic conservatism: Attitudes toward homeless peop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 교육과 태도간 관계에 대한 3가지 설명모델

(1) 발달모델

교육은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을 바꿀 뿐 아니라,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메커니즘

발달모델에 따른 도식 : 「교육 ⇨ 인성 및 인지발달 ⇨ 관용/민주적 태도」

가. 제1입장

■입장 : 교육이 민주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발달한 인지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본다.

■근거

◦ 학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시민자유와 민주주의과정에 대한 특수한 지식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신념, 가치관, 행동에서의 다양성들을 인정하게 되는 다양한 인간의 경험들을 인식하게 된다

◦ 학교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개인의 인지발달이 민주적인 restraint(금지)를 고무하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사고전략의 특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학자 : Hyman & Wright(1979), Nunn외(1978)

나. 제2입장

■입장 : 교육이 사람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 Adorno외 : 교육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자아(ego)를 강화시킨다고 봄

◦ Lipset : 교육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working class authoritarianism(노

동계층 권위주의)의 심리 역동적 개념틀 사용

■학자 : Adorno외(1950), Lipset(1960, 1981)

(2) 사회화모델

■발달모델의 모순에 대한 비판에서 출현

발달모델은 교육과 자유주의간 상관관계에 체계적인 예외사례들에 주목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1950년대 이후 반격을 받게 되는데 이로부터 사회화모델이 출현되게 된다.

■학자 : Jacob(1957), Stember(1961), Jackman(1978), Weil(1982, 1985), McClosky & Brill(1983)

■발달모델에 대한 비판근거2)

◦ Stember(1961) ;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 전형(stereotypes)정도가 약하지만, 유대인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모임의 권익에 대해 보다 지지적인 성향을 보인다.

◦ Jackman : 고학력자들은 인종통합원칙에 보다 지지적이지만 인종통합을 위한 정부행위에 대해서는 저학력자들보다 더 반대입장을 취했다.

◦ Weil : 교육과 자유연설에 대한 허용간 상관관계가 미국에서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독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 반유대주의간 상관관계 역시 문화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본입장 : 학자간 중점을 두어 주장한 것에 약간씩 차이는 있더라도, 교육은 인성이나 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가르침을 통한 태도의 전수나 사회학습과정(모델링과 강화 등)을 통해 직접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

2) 학자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피상적인 사회화를 강조하기도 하였고(예-Jackson),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인 특수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예-Weil).

는 입장을 공유한다.

(3) 이념수정모델

■기본입장

· 흑인, 여성, 빈민에 대한 집단간 신념, 감정, 접촉선호도, 정책지향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과 정치적 태도간에는 일반적으로 미약하고 상호 모순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육은 인종통합의 원칙, 흑인의 거주권, 여성의 근로권 등에 대한 지지정도와는 상관관계를 강하게 나타내었다.

· 미국사회에서 교육은 지배집단의 이익과 그러한 이익을 기술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럴싸한 논리를 지탱하는 개인주의이념의 일부라고 해석

· 교육은 제한된 몇 가지 원칙(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자유주의적 태도와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각 개인이 자기 지위에 적당한 일 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는 동의 하지만, 지위 자체를 교란시키는 것에는 적극 반대한다. 즉, 개인권에 대한 원칙과 교육은 상관이 있지만, 하위 집단의 권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하위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감정과 교육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개인주의이념과 직접 관련되진 않기 때문이다.

■ 학자 : Jackman & Muha(1984)

2. 연구전략

본 글은 정치적 태도를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이슈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기존연구들의 문제점은 1. 사회적 태도만으로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구를 했

다는 점과, 경제적 태도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2. 사회적 태도를 흔히 일탈이라고 인식되는 집단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반면, 경제적 태도는 빈부집단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 노숙인을 표적으로 한 이유 : 노숙문제의 핵심에는 사회적 이슈뿐 아니라 경제적 이슈가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태도에는 구조적 요인들이 노숙문제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과 그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지지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사회적 태도에는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갖는 것에 대한 지지정도나 그들에 대한 인식 혹은 감정 등이 포함된다.

■ 분석자료 : 노숙인집단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식, 태도, 신념에 관한 포괄적 조사자료(Link외, 1994)

3. 각 모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예측

■ 발달모델

발달모델에서의 논리에 입각해본다면, 고학력자일수록 보다 평등주의적(egalitarian)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기꺼이 제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Lipset(1960)은 교육이 높은 지위의 개인이 보이는 사회적 자유주의성향을 보다 잘 설명하긴 하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더욱 보수주의인 경향을 설명해주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하는 경제적 범주라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발달모델 주장자들은 경제적 태도와 관련된 이슈에는 이렇다할 말이 없다. 따라서 본 글의 저자는 Lipset의 주장에서처럼, 소득이 통제되었을 때 교육은 경제적 태도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 사회화모델

사회화모델에서는 학교를 통해 획득되는 태도들은 가르쳐지는 것이라고 볼뿐이지, 그러한 태도들의 내용을 특화하지는 않는다. Selznick과 Steinberg(1969)는 사회화모델의 개정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공식적인 학교체계는 그것을 통해 공식적이고(official) 이상적인(ideal) 문화를 전수하는 1차기체이다. 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이러한 공식문화는 대중적이고 안전한 차원에서 사회를 특성화하는 이상적 규범을 포함한다. Selznick과 Steinberg에 의하면, 미국의 공식문화는 집단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 연구가 반유대주의에 국한된 제한점 때문에 이는 편견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관에 제한된 공식문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공식문화를 좀더 확장하도록 한다. Lipset(1986)은 미국정치의 전통에 위치한 핵심요소로 기회평등, 능력주의사회, 자유방임을 들고 있다.

이러한 미국 공식문화의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화모델은 교육이 노숙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감정(예-관용)을 증가시키고 그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지하게 하는 한편, 노숙을 야기하는 체계적 원인에 대한 믿음이나 그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 대한 지지정도는 약화시킨다고 예측한다.

■ 이념수정모델

이념수정모델에 의하면,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개인자유나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원칙을 지지하지만, 하위집단이 경제적 자원을 보다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즉, 교육은 노숙집단의 경제적 평등주의나 경제적 원조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그들의 개인적 자유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Jackman과 Muha(1984)는 집단이미지나 정서는 개인주의이념과 무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은 노숙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예-관용)과 무관할 것이라 예측된다.

4. 연구결과

(1) 정치적 태도의 범주

60문항의 태도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3개 범주로 구분 : 경제적 원조/ 관용 / 시민으로서의 자유

(2) 교육과 정치적 태도

• 교육은 노숙인들에 대한 관용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교육은 노숙인들의 시민자유에 대한 지지정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 교육은 노숙인들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데 대한 지지도와 부적 관계를 보였다.

5. 논의

3개의 모델 중 어느 것인가?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화모델.

무노동에 대한 병리화를 넘어¹⁾

-거리사회의 대안활동들-

개요

극빈층이 임노동에 참가하지 않을 때 '게으르거나' '병리적'이라고 낙인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노동윤리는 근대 서구역사에서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즉 '게으른 손은 악마의 노동을 부른다'는 말과 같은 노동에 대한 신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미국북동부도시에 있는 거리사람들에 대한 탐색적 현장연구는 다음의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의 활동의 대부분이 사회적 유용성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많은 노숙인과 극빈층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생산적인 일로 보낸다. 본고에서 사회사업가와 사회과학연구자는, 모든 사회사업 대상자에 대한 공식적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보다 노동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전략을 통해 무노동(nonwork)을 탐색한다.

1) David Wagner(1994), Beyond the pathologizing of nonwork: alternative activities in a street community, *Social Work*, 39(6) p718(10)

1. 이론적 배경

「가난한 이가 레저(여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자들에게 늘 충격적이었다 -버트란드 러셀(1935)」

서부사회의 정치 사회적 담론에서 노동윤리 이데올로기만큼 지배적인 가치는 없다. 즉, 모든 노동가능인구는 노동에의 윤리적 의무를 가지고, 그들이 그러하지 않을 때 게으르거나 병리적이라는 관점을 말한다. 빈민은 엄격한 노동윤리에 따라 미국역사에서 가혹하게 판단되어왔다.

본고는 북동부도시의 거리사람들에 대한 탐색적 현장연구에 기초하여, 경제 주류로부터 떨어져 나가 그들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시장경제 외부에서의 의미 있는 역할을 발달시키면서 저임금 노동자 집단의 능력을 설명한다. 그리고 많은 거리활동들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게으름 부리기보다 생산적 노동으로써 개념화할 수 있다.

2. 빈민과 노동윤리

보수주의자는 빈민(하위계급이라 불리는)이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자와 사회복지사는 빈민들은 고용을 하는 데에 구조적 장애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탈산업화에 기인한 기회구조의 폐쇄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차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식시장경제에서 일해야한다는 합의를 모호하게 한다.

K. Marx(1977)에 의하면, work는 인간의 활동으로 정의된 모든 생산적 활동,

labor는 교환가치에의 노동과정에서 무역을 하는 일만을 말한다. 따라서 가사(家事)나 예술작업은 work이다. work 대 labor의 이슈와 무노동이 비참함이나 병리를 이끈다는 이슈는 사회사업의 주요 이슈이다. 왜냐면 사회사업가는 교환가치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임금이 없는 사람들이 노동의 결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의 예를 제공한다. 또한 빈민의 낙인화는 일반대중과 사회복지사가 상담과 자조집단 참여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개념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연구방법

본고는 '북부도시'인 뉴잉글랜드도시에 있는 노숙인(cohort)과 전에 있었던 거리노숙인과 관련된 두 가지 연구프로젝트에 기초한다. 대상자는 현장면담과 참여관찰로 2년의 기간동안 수행되었다. 종단적 현장조사 방법은, '취약한 희생자'(Hich & Slayton, 1989)로만 그들을 생각하기보다 그들 자신의 권리를 가진 행위자로서의 노숙인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었다. 노숙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인 낙인으로써의 '노숙인'의 상태로 동결시키는 위험성을 가진다. 반대로, 종단적 접근은 많은 이가 예외소덕한 노숙인(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라는 것을 밝혀낸다(Piliavin & Sosin, 1987; Rossi, 1989; Wosin, Piliavin, & Westerfelt, 1990).

1987년 7월 둘째 주에 노숙인이었던 105명(cohort)을 대상으로 한다.

1990년 말 초기 연구 이후, 두 번째 프로젝트는 참여관찰에 기반하여 현장기록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 쉼터나 거리, 노숙인모임 등에서 만났다.

이 노숙인들은 노숙대상군의 work상태의 관점에서의 다른 연구와 비슷했다. 즉 4명 중 1명은 공식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많은 이가 Snow 와 Anderson에 따른 'shadow work'를 하고 있었다. 합법적 shadow work는, 깡

통을 줍거나, 고기를 잡는 등의 일을 말하고, 비합법적 shadow work는 약물을 팔거나, 훔친 물건을 파는 일 등을 말한다.

(1) Amy: A Whirlwind of Activity

여성. 38세. 매우 바쁘고 활동적이다.

생활은 서비스, 자조집단, 옹호조직, 교회 등의 활발한 참여로 일반적으로 노숙인이 고립되어 있거나 결연관계가 해체된(disaffiliated) 것과는 상반된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편견과도 상반된다.

왜 생존이나 사회적 참여(종교활동이나 정치적 참여 등)와 연관된 활동이 문헌에서 다루지거나 일반대중의 긍정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름의 생산적인 사회경제적 기능을 갖는 활동들도 어쩌다 스쳐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에는 종종 비활동(inactivity)적으로 비쳐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 수준이 빈약하고, 이런 대중들에 의해 낙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다른 수많은 활동들²⁾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들은 '노숙인'이나 '빈민'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입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2) The Crowd at the Square

일부 거리노숙인은 매일 어느 시간대에는 그들이 'Checkerboard Square'이라 부르는 광장에 집합한다. 이 광장은 모순되게도 고급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다. 광장을 지나가는 일반대중들은 지저분해 보이는 그들을 피해가지만, 이렇게

2) 정치, 종교, 자조집단, 예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나 활동들

공공장소에 모습을 내보이는 행위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집이 없기에 급식을 기다리거나 서비스시간을 기다리거나, 쉼터가 열기를 기다리는 등의 시간을 보낼 때 공공장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Marcuse(1988)는 노숙문제가 "공적 측면public spheres"과 "사적 측면private spheres" 사이의 붕괴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대다수의 노숙인들은 혼자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른 거리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당신이 노숙을 하게 될 때, 당신은 사생활을 가지지 못하며 어느 곳에도 내 것이랄 만한 공간 하나가 없다. 당신은 24시간 사람들과 있게 된다. 이것은 일반대중들에게 아마도 기묘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그것에 익숙해진다.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바로 먼 곳에 떨어지게 되어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료급식소나 광장에 가고, 그들의 동료들을 따라 잡담을 나누고, 동료들을 만나러 다니는 이유이다.

그들이 보내는 공간은 정보를 알거나, 상호도움을 얻거나, 자조활동에의 기능을 한다.

(3) Work Patterns

많은 이들이 공식 취업보다 일용노동직이나 임의직을 선호한다. 또한 공식적 임금노동보다 일용노동이나 1-2일간의 분량의 노동을 더 선호한다. 왜냐면 권력관계와 시간에 있어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리에서 생활함으로써 노동시간에 늦거나 외모가 부적합하기에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배적인 사회적 두려움과 편견, 일용노동이나 임시노동에의 노동작업은 거리

사람들을 낙인화했다. 그러나 그러한 낙인적 관점과 달리 거리공동체에서의 생산적 역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4) 소비자로서의 노숙인

대중은 상담참여, 과제집단활동, 자조집단활동과 같은 활동을 무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지사와 서비스기관 책임자는 그러한 활동을 고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활동들을 일시적 도움을 준다기보다 의미있는 장기간의 시간활용으로써 방어해야만 한다.

이유는, 서비스, 정신건강, 자조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공동체가 대중으로부터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서비스관리자와 직원들은 일시적 위기에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빠른 결과물에 대한 약속에 기반한 기금을 마련하도록 싸운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활용은 장기간의 경제불황에 의해 역동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많은 대상자들은 서비스프로그램에 하루 중 일부의 시간을 활용하고, 기관의 장기간의 소비자로서 참여한다.

(5) Homeless People as Political Activists

19세기이래 노숙인간의 오래된 정치적 활동이 있음에도 뉴욕시 Tompkins Square Park에서의 행동이 있기 까진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노숙인이 옹호자가 되었고, 예를 들어 Theodore, Paula, Dickie가 'People Helping People'을 구성하였다. 거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사를 하고, 여행을 하였다. 예로, Katherine과 Mitch는 1989

년 전국을 여행하여 다른 도시의 쉼터와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몇몇은 서비스 기관과 정치조직위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이들이 항상 노숙인으로서 정치적 행동을 수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6) Homeless People and Religion

Katherine과 Amie의 예처럼 여러 가지 '생산적' 활동을 종교적 신념에서 수행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종교적 활동은 교회의 출석여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종교적 활동의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2년간의 현장연구에 의하면 대략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 노숙인들이 상당한 시간을 종교적 활동에 투여하고 있었다.

종교활동의 양태는 근본주의적인 모임에서부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활동까지 매우 다양하다.

(7) Homeless People as Volunteers

Jack과 Ralph는 일주일에 1회씩 Drop-in-Center의 아침식사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노숙인들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이 빈곤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Nina는 죽은 동생과 관련해서 AIDS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종교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행동에서도 이들이 노숙인으로서의 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특별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8) Homeless People as Artists

많은 노숙인들이 시나 단편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예술적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들의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시를 쓰는 Amy의 경우처럼 돈과 관계없이 순수한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작품들이 지역사회의 통로를 통해서 발표되는 경우도 많다.

4. 논의와 함의

이 글은 2년간의 지역사회(거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노동윤리를 해치고 무위도식한다는 낙인을 받고 있는 노숙인들이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정규경제 외부에서 노동시장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부정하는 강한 사회적 규범이 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해온 압력이었다.

물론 이 연구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work과 nonwork을 구별하는 새로운 개념전략이 사회사업 영역이나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과 보수를 받는 노동의 분리가 점차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숙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쉼터노숙母와 저소득일반母의 욕구특성¹⁾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숙가정과 非노숙빈곤가족을 비교함으로써 ①노숙인 가족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규명하고, ② 최근 2년간 저소득가정의 주거불안정성과 노숙인의 자연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Ellem L. Bassuk, Linda F. Weinreb, John C. Buckner, Angela Browne, Amy Salomom, Shari S. Bassuk(1996),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sheltered homeless and low-income housed mothers. (Caring for the Uninsured and Underinsured),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8) August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은 급진적인 산업화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다.

(상위 20%가 소득의 48.9%, 하위 20%가 소득의 3.6%)

하위층 중에서도 모자세대의 빈곤은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1993년 조사에 의하면 모자세대의 36% 정도가 3.5인 가정의 빈곤선 11890 \$ 이하이며 흑인과 히스패닉 모자세대의 경우는 49.9%에서 52.6%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모자세대는 경제난을 경험하게 될 경우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고품질 서비스를 지향하는 고용구조의 변화
- ② 양육에 대한 전적인 부담
- ③ 주거상황의 변화
- ④ 폭력, 약물남용
- ⑤ 제도적인 지원의 붕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노숙인에 대한 고위험집단이 되게 된다.

Great Depression 경제불황기를 제외하고 1982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은 노숙인 인구에서 수적으로 미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노숙인인구 중 가족이 전체의 36.5%를 차지하며 모자세대가 주를 이룬다.

노숙인과 비노숙인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측면의 차이점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설계, 표본, 측정도구, 조사실시 시기 등의 요인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Worcester Family Research Project의 내용으로서 장기종단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연구방법론의 제한점을 극복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①노숙인 가족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규명하고, ② 최근 2년간 저소득가정의 주거불안정성과 노숙인의 자연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 ① 조사방법 : case control study. 3-4sessions. 10시간 정도
일대일 형식의 구조적 면접
- ② 표본 : 쉼터입소 노숙모 220명과 AFDC 수혜받는 저소득가구모 216명
- ③ 조사내용 : 소득, 주거, 생애사건, 사회적 지지, 학대·폭력 역사, 정신·신체 건강
 - PASS(The Personal Assessment of Social Supports)
 - Family Resource Scale
 - New York Assessment for Women(NYAIW)
⇒ Conflict Tactics Scale을 포함
 - DSMIII R, Non Patient Edition
 - SF-36 Short Form Health Survey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urvey의 질문내용 채택
 -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의 질문내용 채택
- ④ 조사자 : 조사대상자가 여성이라는 특성을 감안 ⇒ 전원 여성조사자
- ⑤ 분석방법 : t-test와 Wilcoxon rank로 분석함

3. 연구결과

항 목	露宿모	복지수혜 모	p value
연간 소득(7000\$ 이하)	46%	17%	p<.01
주거불안정성(최근2년간 이사횟수)	3.8	1.8	p<.001
낮은 지지망			p<.001
전 생애 동안 신체적·성적 폭력경험	91.6%	81.1%	p<.003

▶정신·신체 건강 면에서는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두 집단이 생애 기간 동안 주요 우울증 장애, 사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사용장애 등이 일반 여성인구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일반 여성인구 집단에 비해 두 집단은 낮은 신체적 기능 정도를 보이는 반면 만성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쉼터 노숙모는 저소득 복지수혜모에 비해 낮은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를 보이는 반면 生涯全其間에 있어 학대와 폭력경험비율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

조사결과 두 집단은 가족의 안녕에 반하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치료와 개입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천가와 정책가들은 두 집단의 경제적, 사회 심리적, 신체건강관련 욕구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이다.